한국, OECD 회원국 중 '남녀임금 격차' 가장 큰 나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성 임금이 남성에 비해 가장 적은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글로벌 회계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PwC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을 대상으로 노동 시장 내 남녀 평등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최하위인 3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같은 조사에서 2013년~2016년까지 32위를 유지했으나 2017년 멕시코에 밀려 꼴찌인 33위로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 노동 시장 참여율의 남녀 격차, 여성 실업률, 여성 정규직 고용 비중 등 5개 기준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특히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가 34.6%에 달해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에스토니아(26.7%)보다도 7.9% 포인트 높았다. 일본(24.5%)과는 약 10% 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사라지면 여성의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53%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 생산가능 인구 중 남성의 정규직 고용률은 71%에 반해 여성은 48%라고 밝혔다. 여성 실업률(42%)는 남성 실업률(21%)의 두 배에 달했다. 여성의 기업 임원 비율은 2010년부터 2%대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이 여성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이 현재 수준에서 13%포인트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2017년 기준 스웨덴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63%였다.

▲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남녀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시청역, 출근하는 직장인들

OECD 회원국이 아니라 조사 대상에서 빠진 중국과 인도가 조사에서 포함됐을 경우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27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도는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34위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스웨덴, 3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오른 국가는 멕시코(32위), 그리스(31위) 등이다.

한국, 세계 7번째 '3050'클럽 진입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2만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의미하는 '3050클럽' 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5일 '경향신문' 이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5% 늘어났지만 원화 강세의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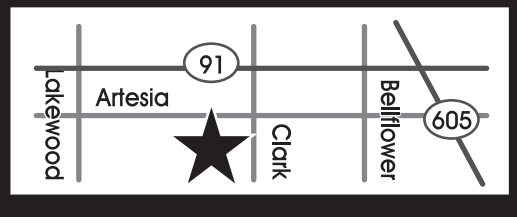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국제적 지표다. 한국은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1만 달러대로 밀려나는 위기도 겪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자본투자와 생산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구 증가가 멈추고 교육연수가 지체되는 것도 이 시점이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1인당 GNI 3만 달러를 넘었다가 2만 달러대로 떨어져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도 1인당 GNI 3만 달러에 도달한 1992년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꺾이면서 '잃어버린 20년' 에 빠졌다. 반면 독일은 튼튼한 중소기업의 힘으로,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앞세운 정보기술(IT) 혁신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이후에도 2%대 성장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올 한국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2% 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4일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2.1%까지 낮췄다. 이런 수준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4만 달러 진입은 커녕 2만 달러로 후퇴할 수도 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끌어올리는 것도 남겨진 숙제다. 고용 부진 속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는 전년 대비 9만7,000개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위기 때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1인당 GNI를 구성하는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 중 기업소득만 대폭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웍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Lease Return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